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http://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5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지금 여기에	노피어 찬양단 찬양 십자가 보혈 앞에
고백과 헌신	교독문 11. 시편 17편 신앙고백 찬송 382장 기도 김순열 권사	기도 김영일 집사 성도의 교제	기도 최용환 형제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복음 20장 24~29절 (신약 337)		
	<b>골짜기를 메우시는 사랑</b>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524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생명의 빛 축도 담임목사	봉헌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3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이해경 권사 축제예배 전선숙 권사 젊은예배 김은숙 간사	[봉헌] 전통예배 김문숙 김영미 축제예배 김성국 장성운 김미정 김화심 최현순 젊은예배 박진경 최민지
수요기도회 19:30	4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영숙 박선희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영미 김은희 남순자



오늘의 말씀

## 골짜기를 메우시는 사랑

[요한복음 20장 24~29절]

첫째,

둘째,



작은날개 목장나눔

#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3-17]

##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 W

WORD

말 씀

.....

1. 내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2. 최근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반가웠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 Q

## QUESTIONS

### 질문

1.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3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4-6절)
2.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9, 12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15-17절)
3.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려고
  - 지난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건을 직면시키기 위해서
  - 베드로의 사랑과 믿음을 확신하도록 만드시려고
  - 예수님의 용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시려고
  -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 기타 :
4.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나눠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 W

## WITNESS

### 증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 W

## WORK & PRAYER

### 기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 복음 전하는 제자

- 여성D-1목장 김정화 집사 -

안녕하세요. 여성 D-1목장 김정화집사입니다.

새롭게 목장에 배정을 받게 되고 목자로 부터 재훈련을 권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훈련까지 받으라 하시니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의 마음이 느껴져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양육반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제자대학을 졸업했기에 수월하게 양육반을 마치고 제자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자학교의 목표는 행복모임 인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구원의 감격으로 매 강의마다 눈물을 흘리며 강의하시는 강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목사님도 아닌 사모님도 아닌 나와 같은 직분의 집사이신 강사님의 영혼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구원 받은 감격으로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하는 삶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 받기 전 저는 “이정도면 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찬양사역을 위해 토요일에 시간을 내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주일에 남들보다 먼저 나와 찬양 연습을 하며 사역을 감당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목장모임과 행복모임에 참여하고 금요철야에 나와 상황이 되면 찬양사역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이 쓸모 없는 자를 주님은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찬양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찬양하는 것을 좋아 했고 찬양의 자리에 우직하게 있기만 했는데 어느덧 성가대를 20년, 카리스찬 앙팀으로 10년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감당했는지,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빠져 찬양 하지는 않았는지,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 하였는지 뒤돌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회개와 징계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이번 훈련을 통해 말씀을 읽는 모습, 큐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아이들에게도 훈련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큐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길 소망하며 몇 달 전 이사를 한 우리가정을 오픈 하여 해피스쿨, 해피키즈가 열렸습니다. 처음 큰아이가 직접 해피스쿨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코끝이 찡해지며 감격스러웠습니다. 훈련을 통해 저와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목격하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

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객님이었던 자매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하며 자매의 임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자매와 만남을 통해 백지전도와 동전예화로 복음을 증거하며 영접하는 감격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 주위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 할 일꾼이 없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 추수하지 못하면 결국 썩어져 버리듯 영혼 또한 시기를 놓치면 결국 죽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안일했던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저 하루를 중요하지 않고 바쁜 일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훈련 받은 대로 어디서든 행복모임을 열어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목장에서든 목자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봐서 목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욱 순종하며 목장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늘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

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 나이가 들고 할 일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않으리라. 행복모임하고 목장모임하며 심심할 틈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 강의마다 눈물로 최선을 다해 비전을 전수해주신 사랑하는 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먼저 본이 되어 항상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15년을 넘게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 계속 성장하시는 열정적인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훈련을 마치고 간증문으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칼럼

## 브니엘의 아침햇살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전국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부딪친 재난이 아니라도 언제 내게도 올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전세계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인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사태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이 곧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못된 술수를 활용하여 제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에 수없이 찾아오셔서 「잘 믿어라, 바로 믿어라, 하나님 육먹이지 말고 살아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시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저 잘못다고 설쳐댔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자와 만나신다.**

현대인은 삶의 주변이 너무 복잡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엎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외국에 가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어렵사리 정리해서 고향 가까이 왔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특유의 기지를 발휘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압박감 나무터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 오신다.**

지금까지 야곱은 비상한 재주로 승승장구 했습니다.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배고픈 형, 성질급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으로 삽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



아셨습니다. 외삼촌의 딸들과 재산을 술수를 부려서 취득하였습니다. 약점과 허점을 이용하여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압박감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입니다. 야곱이 맞서보니 이제까지의 대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옆치락 뒤치락, 먼지가 나도록 있는 힘을 다 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씨름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아, 더 이상 네 힘으로 살면 안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아라” 더 이상 네 수단, 네 꾀, 네 방법으로 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 하지 않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뻗뻗하게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고꾸라지게 하였 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벅지 관절이 재물 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일수도 있고, 탁월한 경험이나 명예, 지위일 수도 있습 니다. 뛰어난 미모나 배경일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떤 것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 **새 이름으로 만난 브니엘의 아침.**

야곱이 고꾸라졌어도 씨름하는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씨름 하던 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라고 부르 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어 이기었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 신다는 것이 더 옳은 뜻입니다.

긴긴밤, 갈등과 고통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 니다. 어제 아침에도 떠 올랐던 태양이 아니 라 새 사람, 새 이름의 사람, 변화된 이스 라엘의 새출발을 축복하는 아침 햇살이었 습니다.



## 금주 도고기도

###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성령충만하여 2020년을 힘있게 이끄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행복모임이 성령충만함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봄사역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 성도를 위한 기도

#### 1. 김은숙 간사

- 목장 식구 박현지 자매가 발을 다쳤습니다.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게 하시고, 검사를 다시 받고, 잘 치료받아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일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소서.
- 목장 식구들의 삶과 훈련과 사역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 청소년부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소서.

#### 2. 고진희 간사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부에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 금주의 감사

-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되게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하심이 어려운 상황에 빛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이 난국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 큰딸이 5년 동안의 타지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교회 소식

###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6,9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3번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저녁 9시), 6개의 기도제목(교회와 비전을 위해서,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봉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사역과 도고기도 사역을 위해서, 이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으로 9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369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이번주 공동체 예배와 수요기도회도 가정에 배로 모입니다.
5. 새 봄 사역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시간 동안 더욱 더 세밀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여 힘있게 새봄 사역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역국에서는 사역을 준비하셔서 봄 사역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례를 위한 교육이 3월 31일(화)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자로 만 14세 이상  
 세례 - 학습 받은 자  
 유아세례 - 만2세 이하 어린이로 부모가 세례를 받은 자  
 입교 - 유아세례 받은 자로 만 17세 이상
7. 2020 여름 두달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3목장(박영자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운 목자)  
2층 : 여성B-4목장(임영미 목자)  
3층 : 여성A-3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 새가족 섬김이

노경자 집사 (섬김이 : 강애진 집사)  
홍창의 형제 (섬김이 : 김민수 형제)  
박순례 집사 (섬김이 : 장미경 집사)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간사)

#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 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 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 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 9시
작 은 날 개 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 효진 권요셉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http://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http://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 시의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